

이슈 리포트

69호 (2020년 2월 4일)

[월간 전망]

2020년 2월 정국흐름 및 전망

■ 2020년 1월 정국 총평

- _ 상승세 조짐 보이던 국정평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향세 뚜렷
- _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도 영향 줌
- _ 진보층 줄어들고 중도층과 보수층 확장돼
- _ 정부·여당 위기대응 능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밀려

■ 역대 정부 전염성 질병과 국정평가 흐름 분석

- _ 주요 전염성 질병 현황
- _ 메르스 당시 국정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추이 분석

■ 2020년 2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 _ 2020년 2월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 _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총선 구도 드러날 듯

■ 2020년 2월 정국 3대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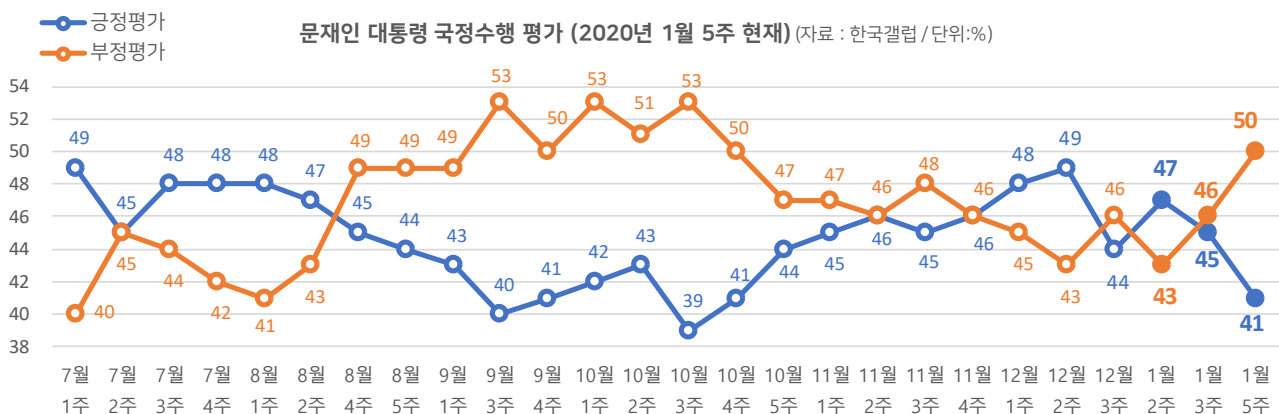
-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진정될까?
- ② 재편중인 야권, 누가 앞서갈까?
- ③ 당내 컷오프 정치인들의 선택은?

[월간 전망] 2020년 2월 정국흐름과 전망

■ 2020년 1월 정국 총평

□ 상승세 조짐 보이던 국정평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향세 뚜렷

- 당초 1월은 공수처법 처리에 이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으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음
 - 2020년 첫 조사였던 1월 2주에 국정수행 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 되었음
- 그러나 검찰 인사 논란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치면서 급속도로 하락세로 돌아섬(자료 : 한국갤럽)
 -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국정수행 평가를 하락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보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될 2월 역시 국정수행 평가는 하락 또는 횡보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대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임



1월 1주 주요 사건

- 12/30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01/02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 01/05 새로운보수당 공식 창당

1월 2주 주요 사건

- 01/05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청와대 참모진 개편
- 01/06 문 대통령, 신년사 발표
- 01/08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 01/09 보수 정당, 시민단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01/12 대안신당 공식 창당

1월 3주 주요 사건

- 0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01/14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 01/16 고가주택 보유자 등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안 발표
- 01/19 안철수 전 대표 귀국

1월 4주 주요 사건

- 01/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첫 확진자 발생
- 01/21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 결정

1월 5주 주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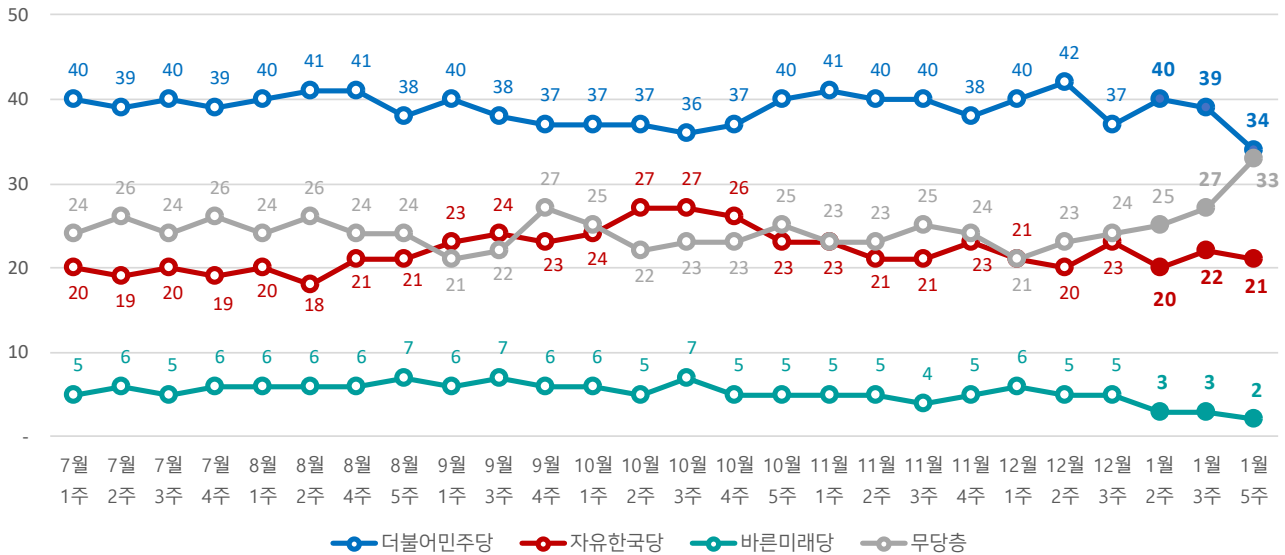
- 01/29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인사 다수 불구속 기소
- 01/30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 01/31 우한 교민, 1차 입국
- 02/01 우한 교민, 2차 입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도 영향 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국정수행 평가를
하락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보임
국정운영 평가와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횡보
양상을 보임

-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1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침
 -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34%를 기록함(자료 : 한국갤럽)
- 국정운영 평가와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간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자유한국당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당지지도 21%에 그침
 - 무당층이 33%로 급증한데서 보듯 민주당에서 이탈한 국민은 한국당이 아니라 무당층으로 이동함
 - 한편, 유승민 의원 그룹이 탈당한 바른미래당은 지지도 5%가 무너지고 2% 정당으로 축소됨

정당 지지도 (2020년 1월 5주 현재) (자료 : 한국갤럽 / 단위:%)



- 2월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횡보 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당은 여권 지지도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지만 보수대통합이 성과를 거둘 경우 지지도(통합 보수정당) 상승을 이룰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수대통합이 아닌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간의 통합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지도 역시 두 정당의 지지도를 산술적으로 합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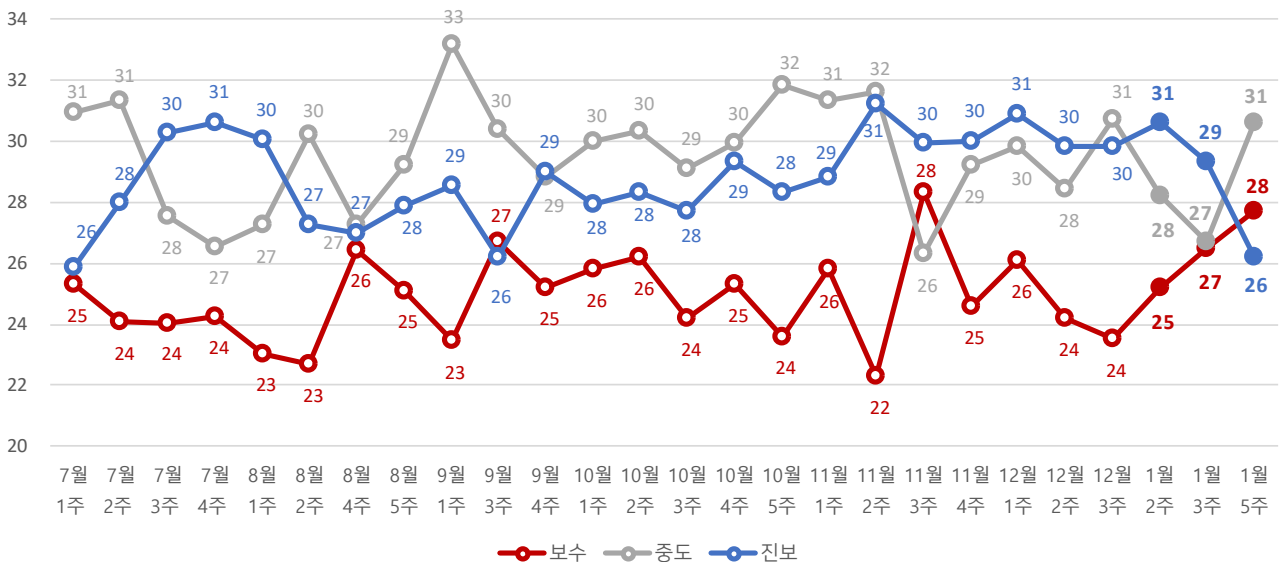
□ 진보층 줄어듦과 중도층과 보수층 확장돼

중도층 규모가 31%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진보층이 중도층으로 이동한 결과로 보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민의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분석됨

- 조국 사태 이후 30%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진보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동요하는 모습임
 - 1월 5주 현재 주관적 진보층 규모는 26%로 줄어듦(자료 : 한국갤럽)
- 중도층 규모가 31%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진보층이 중도층으로 이동한 결과로 보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민의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분석됨
- 보수층도 규모가 소폭 늘었는데, 이는 '모름/무응답'에 머물러 있던 일부가 보수층으로 회귀한 결과로 보임
 - 대규모 검찰인사에 대한 반발감이 보수층 결집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이러한 보수층 결집(28%)이 자유한국당 지지(21%)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특이함
 - 자유한국당과 보수층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써 향후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간 통합이 성사될 경우 이들이 통합 보수당을 지지할지 귀추가 주목됨

주관적 이념 성향 (2020년 1월 5주 현재) (자료 : 한국갤럽 / 단위:%)



- 2월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중도층 강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보수대통합이 이뤄지더라도 그 영향력은 보수층 일부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여당 위기대응 능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밀려

- 2020년 1월의 주요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별로 분류한 것과 실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두번째 칸은 당초 예상에서 달라진 아젠다·이슈의 변동 방향을 의미함
 - 세번째 칸의 점선 및 별표(*) 표시 내용은 해당 부분에 추가된 아젠다·이슈임

긍정적 아젠다·이슈	중간적 아젠다·이슈	부정적 아젠다·이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정세균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보수대통합 흐름 안철수 전 대표 귀국 후 행보	조국 전 장관 및 가족 재판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조사
문 대통령 신년사 ➡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 ➡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사법농단 연루자 1심 선고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김경수 지사 2심 판결	북한의 도발 가능성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 논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 1월 정국은 공수처법 처리에 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등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검찰개혁 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이 집중 조명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발휘함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은 특별한 아젠다 제기가 없으면서 중간적 아젠다·이슈에 그침
- 여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국민적 공포감으로 이어지면서 여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시 정부가 아무리 잘 대응하더라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불가피함
 - 특히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한 조치에 있어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조치와 대비되면서 부정평가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 최근 전염성 질병과 국정평가 흐름 분석

□ 주요 전염성 질병 현황

○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전염성 질병 현황은 다음과 같음

종 류	발생년월	지속기간	근원지	전파국가	감염자	치사율	전염성
사스 (SARS.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2002년 11월	약 7개월	중국 광둥성	홍콩 등 총 17개국 *한국 없음	8,273명	9.6%	강함
메르스 (MERS.중동 호흡기증후군)	2012년 4월	3년여 동안 산발적 지속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 중심 총 24개국	1,084명	40%	낮음
메르스 한국	2015년 5월	약 7개월	사우디아라비아	-	186명	20%	낮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2019년 12월	?	중국 우한	총 27개국 유행 중	17,486명*	2%*	사스 > 신종 코로나 >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2020년 1월	?	중국 우한	-	15명	0%*	

자료 : 위키백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는 2020년 2월 3일 현재

○ 사스의 경우 한국에 전파되지 않았으나 메르스는 2015년 5월에 전파돼 186명을 감염시키고 20%의 치사율을 기록함

- 2015년 5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거쳐 바레인을 방문한 68세 남성이 첫 확진 진단을 받은 이후 6월 4일까지 총 186명, 38명이 사망함

○ 감염자는 5월 20일 부터 6월 4일까지 한달 이내에 그쳤으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는 2015년 12월 23일 자정을 기해서야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함

○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감염자는 초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종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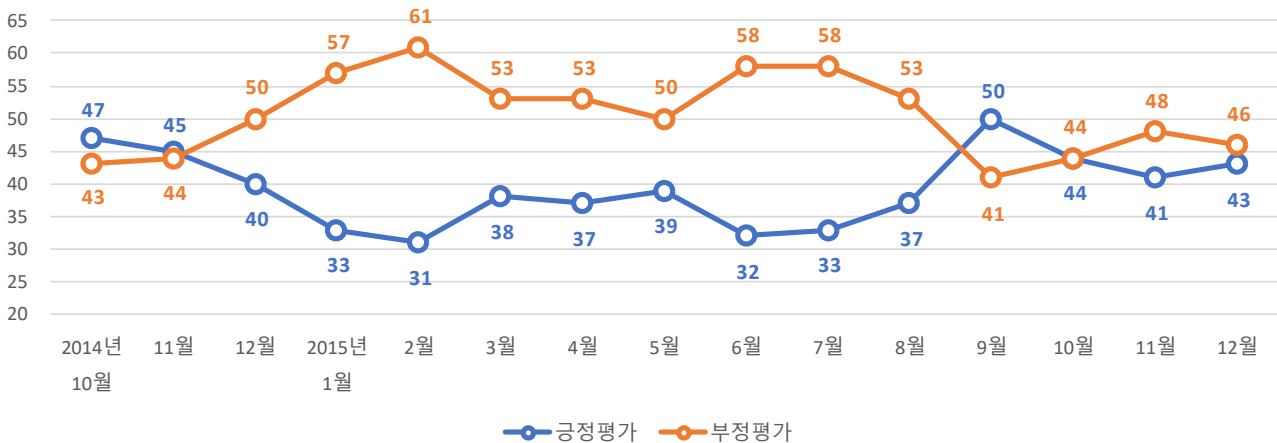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접한 중국에서 대유행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상황 종료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이 상황종료를 선언하기 어려움

□ 메르스 당시 국정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추이 분석

메르스 사태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국정운영
긍정평가를 하락은
정치적 측면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 현황을 살펴 보면 메르스 발발 직후에 긍정평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자료 : 한국갤럽)
 - 5월 39%에서 6월에는 32%로 하락하고 7월에도 33%였음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임
- 그러나 1월 시점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급속한 하락으로 보기 어려움
- 당시 정국은 이른 바 '정윤희 문건'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할 때였음
 -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에 '정윤희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으며 이때부터 정윤희, 박지만 등 박근혜 대통 측근들의 내부권력 투쟁 등 다양한 보도가 이어졌음
 -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보임
 - 메르스 감염자는 5월 20일 부터 6월 4일까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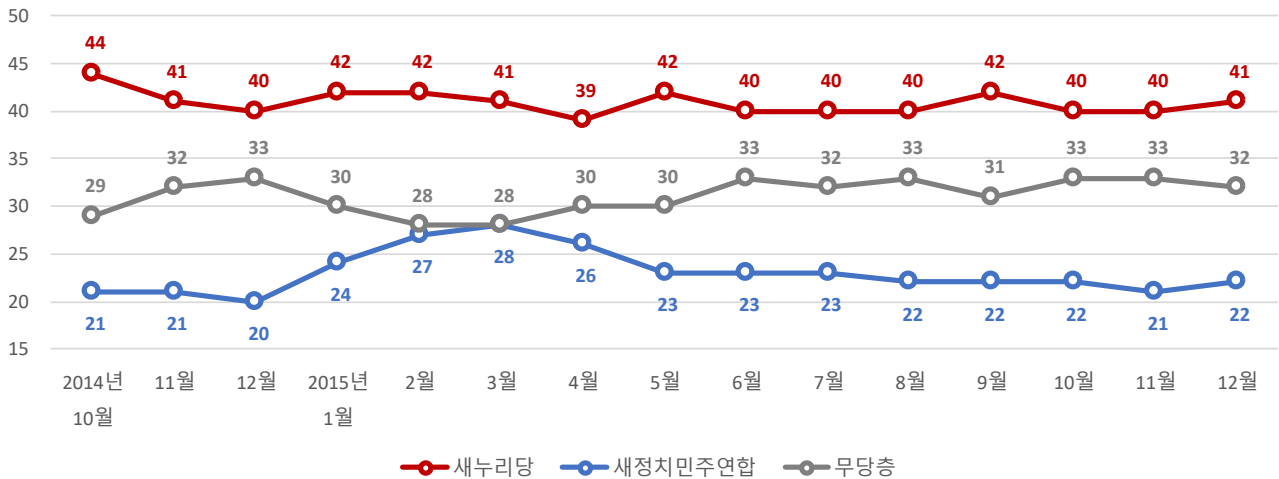
2015년 당시 대통령(박근혜) 국정수행 평가 (자료 : 한국갤럽 / 단위:%)



-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8월 부터 지지율이 상승하고, 9월에는 50%까지 높아짐
 - 메르스 사태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급상승한 것은 메르스 사태 해결이 아닌 정치적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즉, '정윤희 문건 파동'이 일단락 되면서 지지층이 재결집한 것이 긍정평가 상승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임

- 같은 기간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율은 메르스 사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음
 - 새누리당 지지율은 5월 42%에서 6월 40%로 2%p 하락에 그쳤고 이후에도 40%를 유지함

2015년 당시 정당지지도 (자료 : 한국갤럽 / 단위:%)



여권 입장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찾기
보다 검찰과의
마찰에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임

- 메르스 사태가 여권에 악재였지만 국정수행 평가 및 정당지지도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던 요인은 '정윤희 문건 파동'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보다 근본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됨
 -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상황 자체가 국정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함
 -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내내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할 것으로 속단하기 어려움
 - 오히려 검찰과의 마찰과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저지라는 측면이 부각된 것이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동반 하락의 이유로 보임
- 여권 입장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찾기 보다 검찰과의 마찰에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임
 - 마찬가지로 야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장에 주목하기 보다 현 정부의 '검찰 장악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2020년 2월 주요 일정 및 흐름 전망

□ 2월 주요 일정 및 특기 사항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9(일)
주요 일정	•미국 대선경선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투표)	•후베이성 외국인 입국 금지 시행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	•보수진영 통합신당 준비위 출범 •한국은행 12월 국제수지 발표		(09)안철수 신당 발기인대회 (09)민주 총선후보자 면접심사(~13)
특기 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 고비 / •황교안 - 유승민 담판 가능성 /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후보적합성 조사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16(일)
주요 일정	•2월 임시국회 개회 (잠정)	•미국 대선경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일반국민 참여)			•선관위 정당보조금 지급(15일이 토요일이기로 선지급)	(15)총선 D-100일
특기 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 고비 /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컷오프 발표(전망)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23(일)
주요 일정				•보수진영 통합신당 출범(잠정)		
특기 사항	•민주당 총선후보자 컷오프 발표(전망)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3.1(일)
주요 일정			•총선 D-49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통화정책 결정회의	•2.28민주운동 기념일	(01) 안철수 신당 창당 (01) 3.1절 101주년
특기 사항	•민주당 총선 후보 당내 경선 시작(전망)					

※ 해외 일정은 현지 시각

※ 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 전망

※ 2월, 각 정당 총선 체제 본격화(당내 경선 컷오프 등)

※ 2월 중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김경수 지사 2심 판결 선고(전망)

※ 미국 대선, 3월 3일 슈퍼화요일(민주당 15개주, 공화당 14개주 대의원 선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총선 구도 드러날 듯

2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전 국민적, 전 세계적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2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언론, 정치권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또는 진정 여부가 중요함에 따라 중국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본격 행보에 돌이하게 되는데 크게는 총선에 임하는 정당간 이합집산이 주목받을 것이고, 작게는 각 정당의 컷오프 결과 및 파장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정당간 이합집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이른 바 보수대통합으로, 20일 전후 출범을 목표로 하는 통합신당이 어떤 노선과 인물이 참여할지 관심임
 - 통합신당 출범 이후에는 어느정도의 정당지지도를 획득하는지가 관심임
 -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에 대한 정당지지도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임
- 1월의 각종 아젠다·이슈를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긍정적 아젠다·이슈	중간적 아젠다·이슈	부정적 아젠다·이슈
민주당 총선 체제 본격화 미래한국당 출범	보수진영 통합신당 출범 안철수 신당 출범 2월 임시국회 선거구제 확정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김경수 지사 2심 판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반발 법무부-검찰 마찰 지속

- 2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전 국민적, 전 세계적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확진자 발생이 유지되거나 정부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단기간내 부정 여론이 급등할 것으로 보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전반적으로 중간적 아젠다·이슈가 많아 유동성이 많은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긍정적 아젠다·이슈는 거의 없어 위기관리와 더불어 총선 후보자 컷오프, 외부인사 영입 등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2월 정국 3대 포인트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진정될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2가지 공포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
 - 하나는 자국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공포심이고, 둘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공포심임
 -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혐오 또는 배제에 대한 비판과 무관하게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인) 고립에 나서고 있음
- 한국도 이러한 2가지 공포심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어 국내 차원의 확진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2월 내내 불안감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일단 한국 차원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고비는 2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잠복기가 최장 14일로 알려져 이 기간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느냐 여부가 확산/소멸의 기준이 될 것임
- 다행히 국내 차원의 확진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상황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3월, 또는 4월까지도 상황이 정리되지 못할 우려가 큼
-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은 4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진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혐오와 배제 반대에 대한 이성적 논리와 감염 우려에 대한 감성적 공포 사이에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면 감성적 공포에 주목해야 할 것임

GAME CHANGERS

입소스는 리서치 전문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유일한 글로벌 리서치 기업입니다.

입소스 퍼블릭 본부 : 3가지 포커스

01

정밀한 조사

글로벌 표준, 최신 기법을 적용한 정확한 여론, 현상 측정

02

입체적 분석

글로벌 비교, 국내외 통계를 활용한 깊이 있는 분석

03

전략 컨설팅

정책 방향,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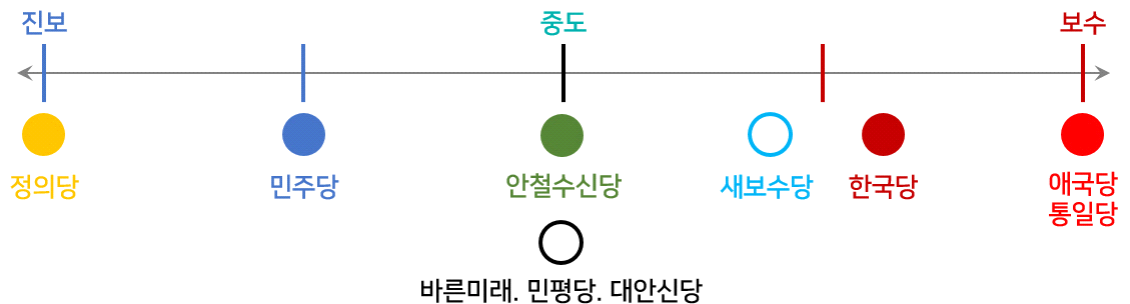
입소스 퍼블릭 본부 : 주요 서비스 라인

<div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글로벌 여론조사</p> </div> <p style="font-size: 10px; margin: 0;">세계 30여개 국가 월간 온라인 공동조사 참여</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정책진단</p> </div> <p style="font-size: 10px; margin: 0;">정책 여론과 효과분석, 시사점 도출</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정책진단</p> </div> <p style="font-size: 10px; margin: 0;">정책 여론과 효과분석, 시사점 도출</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여론과 사회</p> </div> <p style="font-size: 10px; margin: 0;">입체적 여론 분석, 공공부문 현상과 통계 작성</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정치 컨설팅</p> </div> <p style="font-size: 10px; margin: 0;">정치, 선거 민심 측정과 Campaign 전략 수립</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정치 컨설팅</p> </div> <p style="font-size: 10px; margin: 0;">정치, 선거 민심 측정과 Campaign 전략 수립</p>

② 재편중인 야권, 누가 앞서갈까?

-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영향으로 인해 많은 정당이 탄생하고 있음
 - 이전 총선과 달리 정당투표 3% 이상을 달성할 경우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 많은 정당이 창당되고 있음

○ 주요 정당 현황 및 이념적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심력으로 보수정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애국당, 통일당 등으로 분열되어 있음
지역구 후보 선거에서 보수표 분산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임

- 진보정당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거대 정당인 민주당으로 단일화되어 있음
 - 정의당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지역구 후보 선거보다 정당득표율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보수정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애국당, 통일당 등으로 분열되어 있음
 -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원심력 때문인데, 지역구 후보 선거에서 보수표 분산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임
 - 이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1:1 대결구도 정립을 위해 통합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임
- 귀국 후 독자정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층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안철수 전 대표의 독자신당 창당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른 바 중도·보수 통합은 무산된 것으로 보임
 - 중도진영에는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 등이 있으나 이들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활로를 모색할지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움

선거에서의 우위를
위해 야권재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야권
보다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렇듯 4.15 총선에서의 우위를 위해 야권이 활발한 재편을 추진 중에 있어 2월 중에는 누가 앞서가는지 각종 여론조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의 수치에 기반해 예상할 때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한 통합신당이 가장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안철수 신당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인 수치는 정당지지도로 확인될 것임
- 결과적으로는 야권재편이 야권 보다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민주당은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야권은 보수, 진보로 나뉘고 그 안에서 독자노선을 유지하는 정당들이 있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마지막 변수는 야권이 각 정당의 독자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후보단일화 전략을 펼치는 것임
 - 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보수정당 통합(한국당과 새보수당간 통합) 이후 안철수 신당까지 포함한 후보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1:1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진행 및 합의 여부가 주목되는 지점임

③ 당내 컷오프 정치인들의 선택은?

- 자유한국당은 2월 초·중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에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에 있음
 - 컷오프는 당내 경선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임
- 현행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하면 탈당 후 다른 당 후보로의 출마나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컷오프의 경우 이러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에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총선기획단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을 지역구 3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최소 30명이 공천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현역 의원 수는 108명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컷오프에
반발해 다른
보수정당(애국당이
나 통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에
따라 총선 구도는
또 한차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됨

- 이들 컷오프 의원들이 반발해 다른 보수정당(애국당이나 통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에 따라 총선 구도는 또 한차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에도 보수후보 난립에 따라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
-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컷오프에 반발해 다른 정당(안철수 신당 또는 대안신당 등) 후보로 출마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상황이지만 이들 현역 의원의 경선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을 방침이기에 탈당 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가 컷오프 된 후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지만 무게감이 크지 않은 후보인 경우가 많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컷오프 정치인, 특히 자유한국당의 컷오프 정치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임